

유럽 주요국 무급가사노동의 인구학적 특성과 시사점

*Unpaid Housework and Intergenerational Economy
in Core European Countries*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고령화시대에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는 여성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은 60.3%로 OECD 평균 65.1%에 비해 약 5% 낮은 수준(2013년 기준)이므로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비록 노동시장에서 유급시장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가정 내에서 가사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다는 점에서 무급가사노동¹⁾의 인구학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여성의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낮았던 이유는 시장경제도하에서 무급가사노동의 가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전업주부가 수행하는 무급가사노동은 가족의 후생수준을 높이지만, 화폐가치로 측정되지 않

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경제성장률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에서 산출되는 주요 경제지표인데, 국민계정은 시장부문에서 화폐가치로 거래되는 후생수준, 생산적 활동만을 추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식조리와 세탁, 자녀돌봄이 누구에 의해 수행되었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경제수준은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동일한 가사활동이라도 가정 내 주부가 아닌 고용된 가사도우미 또는 보육도우미에 의해 수행된다면 경제성장률은 상승하게 된다. 선진국에서 가사활동에 대한 아웃소싱이 활발한 반면, 개발도상국에서 성역할의 구분이 뚜렷하여 여성이 가정 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경제성장률에 가사활동도 고려되어야 한 국가의 진정한 후생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으며, 무급가사노동을 국민계정의 가계부문 위성계정(Household Production Satellite

1) 이하 본고에서는 임금을 받지 않고 가정 내에서 수행하는 가사활동은 무급가사노동(unpaid housework)이라 함. 경제성장률에 포함되는 유급가사노동(paid housework)과 구분하기 위함.

Accounts)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한편 최근 유럽에서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2014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0차 국민이전계정²⁾ 국제컨퍼런스(10th Global National Transfer Accounts Conference)에서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Alexia Fmkranz-Prskawetz가 유럽 주요국의 무급가사노동의 성별 및 연령별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³⁾. 국민이전계정 국제컨퍼런스는 국민이전계정 글로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4년 이후 11회 개최되고 있다. 국민이전계정 글로벌 프로젝트는 미국 UC Berkeley 소재 Center for Economics and Demography of Aging(CEDA)과 하와이대 소재 East-West Center(EWC)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전 세계 40여개국의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기적인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국민이전계정의 방법론 개발 및 진전을 위한 공동연구, 국가별 데이터 구축 및 비교분석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Alexia Fmkranz-Prskawetz의 연구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무급가사노동이 연령별로 혹은 성별로 얼마나 생산되는지 보여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유럽 주요국의 무급가사노동이 연령별 및 성별로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는 Alexia Fmkranz-Prskawetz의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

고 정책적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2. 무급가사노동과 국민시간이전계정

1) 무급가사노동의 측정

한 국가에서 수행한 무급가사노동은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와 임금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측정된다. 무급가사노동에는 요리와 청소, 세탁 등 가정관리와 가족돌봄(미취학자녀, 성인, 노부모 등) 등이 포함된다.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생활시간조사를 국제비교 가능하도록 Multinational Time Use Survey(MTUS)가 제공되고 있다.

생활시간조사는 조사대상자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시간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국민계정의 가계부문 위성계정을 구축하는데 핵심자료가 된다. 따라서 UN에서는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통계청에서 1999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시간조사는 국가별로 조사기간과 조사시간간격, 조사대상의 연령⁴⁾, 조사활동의 분류 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는 조사항목 등의 조정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2차 가공된 자료가 MTUS이다. 본고에서는 Alexia Fmkranz-Prskawetz가 2014년 제 10

2) 국민이전계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ttp://www.ntaccounts.org> 또는 황남희·이상협·양찬미(2014), 인구구조 변화와 공·사적이전 분담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람.

3) <http://www.ntaccounts.org/doc/repository/Fmkranz-Prskawetz%20presentation.pdf>

4) 프랑스 15세 이상, 이탈리아 3세 이상, 영국 8세 이상 등으로 다양함. 따라서 이하 유럽 주요국의 결과는 15세 이상을 비교분석함. 참고로 우리나라는 10세 이상임.

차 국민이전계정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자료의 기본이 되는 연구보고서인 Bernhard et al. (2013)⁵⁾이 MTUS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구축한 국가 중 6개 국가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즉 프랑스와 독일, 영국,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6개국이 활용되었으며, 오스트리아 등은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오스트리아는 MTUS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아니며 보고서의 주저자, Bernhard Hammer가 속한 국가에서 별도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마다 활용한 자료 연도가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⁶⁾. 프랑스는 1998년, 독일 2001년, 영국 2000년, 핀란드 1999년, 이탈리아 2002년, 스페인 2002년이다.

한편 무급가사노동은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가능하다. 무급가사노동을 회계적 가치로 추정하는 방법은 무급가사노동 참여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는 것이다. 시간당 임금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무급가사노동의 경제규모 추정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은 기회비용법과 전문가 대체비용법이다. 기회비용법(opportunity cost method)은 무급가사노동 총 수행시간에 노동시장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다. 반면에 전문가 대체비용법(specialist replacement cost method)은 무급가사노동 세부활동별로 특성에 가장 적합한 노동시장의 임금을 활용한다.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는데 절대적으로 우수한 방법은 없다. Bernhard et al.(2013)에서는 기회비

용법을 적용하였으며, 미국과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등에서는 전문가 대체비용법을 활용하여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회비용법이 전문가대체비용법에 비해 경제적 가치 규모가 크게 산출된다.

2) 국민시간이전계정의 기본개념

앞에서 언급한 유럽의 연구결과는 기존의 무급가사노동의 경제적 규모를 제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무급가사노동이 가정 내에서 어떻게 소비되는지 성별 및 연령별로 분해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성별 및 연령별 소비 배분은 국민시간이전계정(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 NTTA)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가능하다⁷⁾.

국민시간이전계정의 기본개념을 살펴보면, 무급가사노동의 생애적자(life cycle deficit)와 생애재배분(age reallocation)은 일치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생애적자란 소비에서 생산을 차감한 것이며, 생애재배분은 이전을 의미한다. 한 개인의 생애적자는 전 생애에서 소비와 생산은 일치하지만, 특정 연령에서는 불일치하게 된다. 생애적자가 양(+)이면 소비가 더 많고, 음(-)이면 생산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생애적자가 음이면 이전을 통해서 생산을 유출(outflow)하고, 반대로 양이면 생산의 유입(inflow)을 통해 소비가 가능해진다.

5) Hammer, B., Prskawetz, A., and Freund, I.(2013). Reallocation of Resources Across Age in a Comparative European Setting, *Working Paper.13*.

6) MTUS에서 활용하는 각국의 생활시간조사의 조사주기 등이 다르기 때문임.

7) 따라서 국민시간이전계정은 국민이전계정의 가계부문 위성계정으로 볼 수 있음.

(수식 1)은 국민시간이전계정의 기본식이다. 좌변은 유입으로 생산(Y)과 이전의 유입(F), 우변은 유출로 소비(C)와 이전의 유출(F^0)로 구성된다.

$$Y + F^i = C + F^0 \quad (\text{수식 1})$$

이를 재구성하면 (수식 2)와 같이 좌변은 생애적자, 우변은 생애재배분의 항등식이 된다. 생애적자는 소비와 생산의 차이이며 생애재배분은 이전의 유입에서 유출을 차감한 순이전으로 구성된다.

$$\underbrace{C - Y}_{\text{생애적자}} = \underbrace{F^i - F^0}_{\text{생애재배분}} \quad (\text{수식 2})$$

한편 국민시간이전계정에서 소비가 어떻게 연령별로 배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가정 내 가구원이 동일하게 무급가사노동을 소비하는(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가정한다⁸⁾. 무급가사노동은 공공재와 같이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non-rivalry and non-excludability)⁹⁾ 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가정은 합리적이다(Bernhard et al., 2013). 그러나 돌봄노동은 특정 가구원을 위한 서비스이므로, 해당 가구원이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유럽 주요국 무급가사노동의 성별 및 연령별 특성¹⁰⁾

유럽 주요국 무급가사노동의 인구학적 특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정규화 과정을 거쳤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무급가사노동을 각국의 30~49세 인구 전체의 유급시장노동 평균임금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로 나타냈다. 무급가사노동의 연령프로파일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무급가사노동의 생산에서 남녀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우선 여성의 무급가사노동 생산규모는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며, 특히 30대 전후의 출산 및 양육 연령대에서 여성의 역할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무급가사노동 생산은 남성과 달리 60~70세 외에, 30~35세에서도 정점(peak)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남녀 모두 노년기에 무급가사노동의 생산규모가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여 유급시장노동이 무급가사노동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무급가사노동에 수행한 시간의 차이를 비교하면, 여성의 무급가사노동 수행시간이 프랑스와 독일, 영국, 핀란드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에서 성인여성은 하루 평균 5시간(300분) 무급가사노동을 수행한다. 물론 정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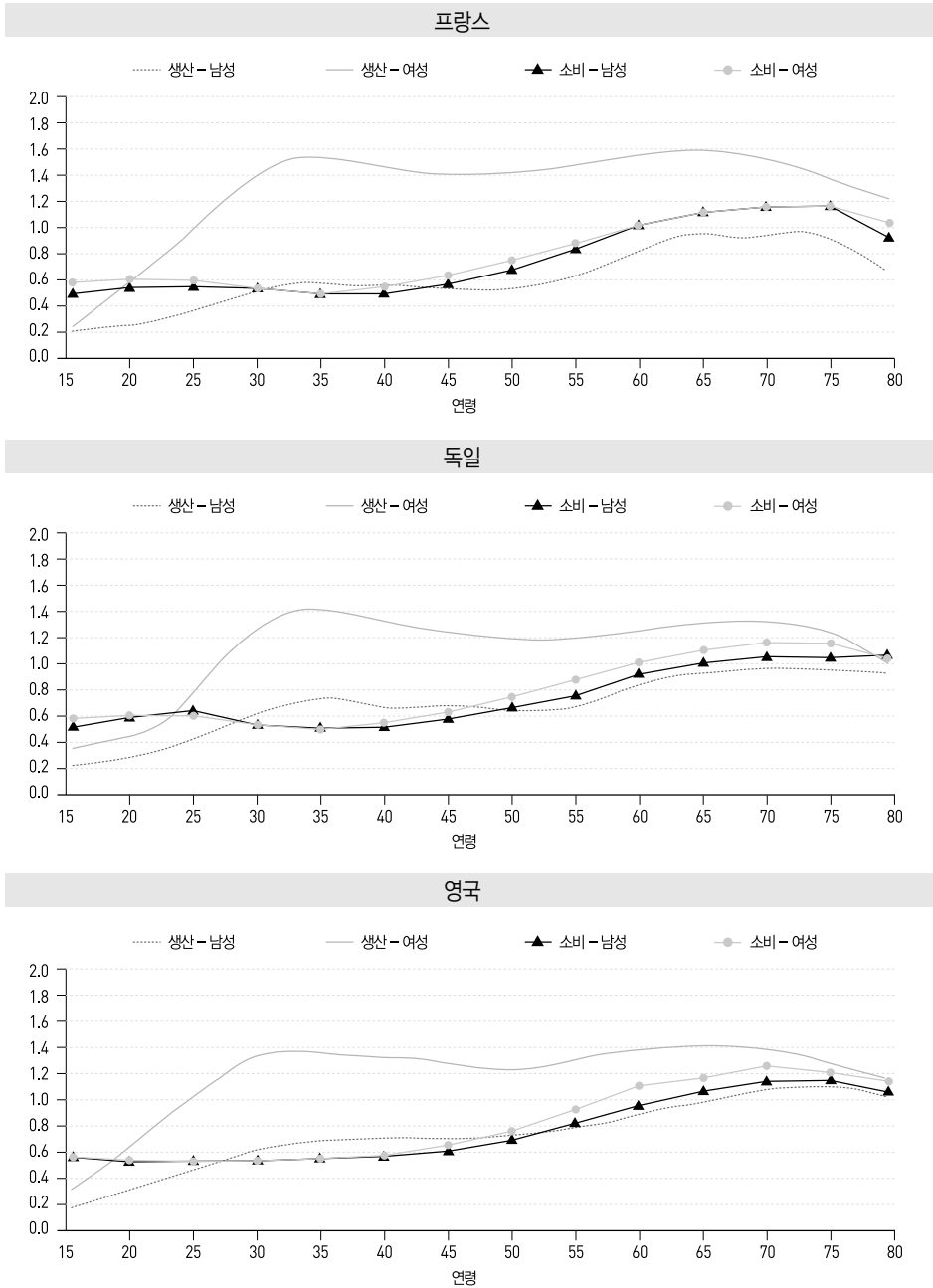
8) 가령 전업주부가 집안청소에 2시간을 소요했고 가족 수가 4명이라면, 이 가족들은 각각 30분씩 동일하게 집안청소라는 무급가사노동을 소비한 것으로 간주함.

9) 사유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음. 경합성은 한 사람이 특정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적게 소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배제성은 다른 사람이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의미함. 무급가사노동이 공공재와 유사하다는 것을 집안청소의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음. 집안청소로 인한 쾌적함을 전업주부가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가족구성원이 그 쾌적함을 적게 누리는 것이 아니며, 특정 가족구성원에게서 쾌적함의 혜택을 배제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됨.

10) Hammer et al.(2013)의 핵심연구 결과를 발췌하였으며, 본고에서 그림으로 제시된 연령프로파일은 Bernhard Hammer로부터 제공받아 저자가 재구성한 것임을 밝힘.

그림 1. 유럽 주요국의 무급가사노동 연령프로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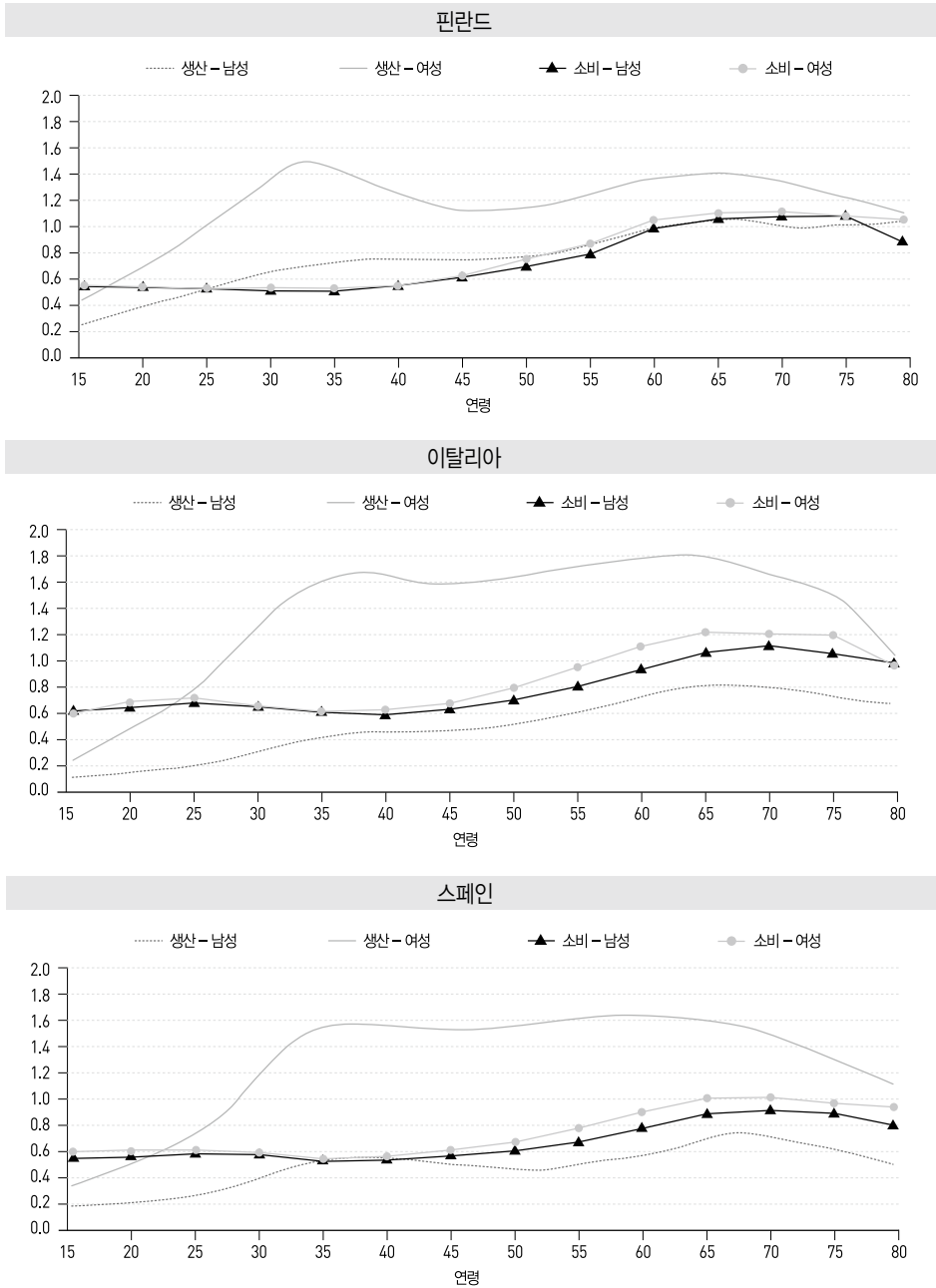
(단위 : 30~49세의 유급시장노동 평균임금 대비 비율)



자료: Hammer et al.(2013)의 자료를 제공받아 재구성함.

그림 1. 유럽 주요국의 무급가사노동 연령프로파일(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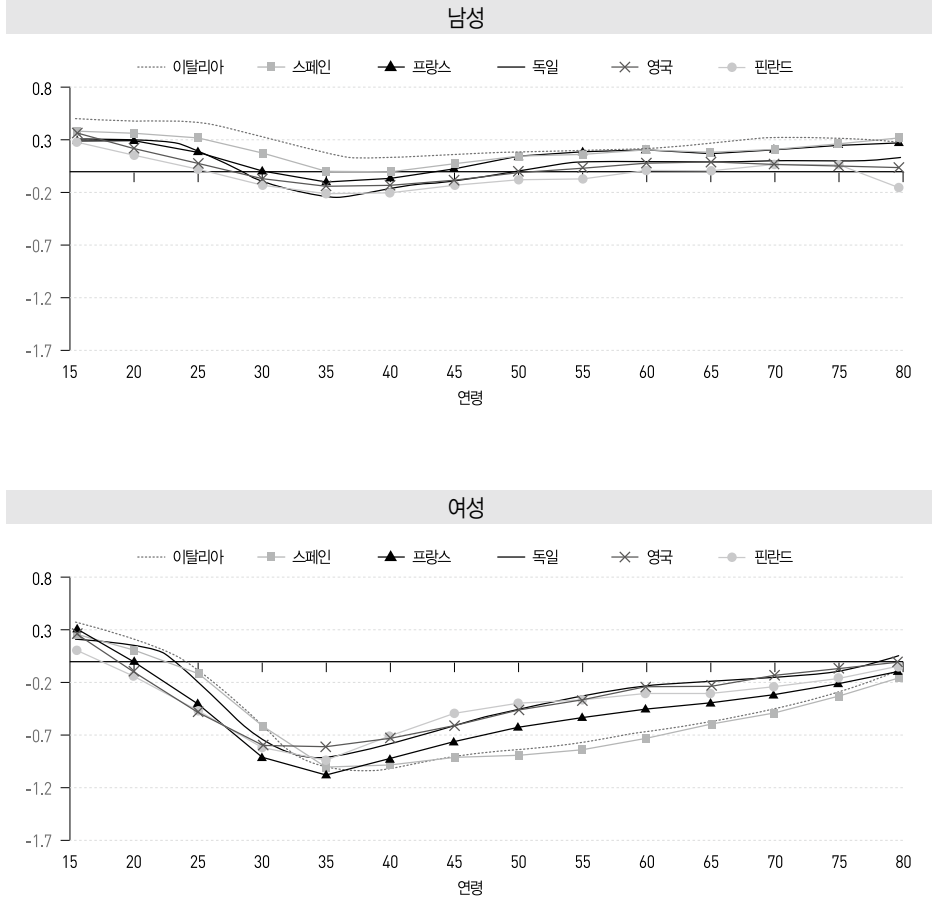
(단위 : 30~49세의 유럽시장노동 평균임금 대비 비율)



자료: Hammer et al.(2013)의 자료를 제공받아 재구성함.

그림 2. 유럽 주요국의 무급가사노동 생애적자 연령프로파일

(단위 : 30~49세의 유럽시장노동 평균임금 대비 비율)



자료: Hammer et al.(2013)의 자료를 제공받아 재구성함.

에서는 보다 더 많은 시간이 무급가사노동에 할애되며, 40~55세에서는 보다 적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다. 스페인 여성은 하루 평균 1시간 더 많은 6시간(360분)을 무급가사노동에 종사하며, 이탈리아 여성은 약 7시간(400분) 무급가사노동을 수행하여

비교국가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여성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급가사노동의 대부분은 은퇴 이후에 이루어지며 하루 평균 3~4시간 수준

이다. 남유럽 국가인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남성의 무급가사노동 수행시간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¹¹⁾. 무급가사노동의 소비수준은 50세까지 비교적 동일하게 유지되다가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 35세 전후 미세하게 무급가사노동의 소비수준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가구규모 증가의 효과이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30대 중반에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이때 성인남녀의 무급가사노동에서 자녀돌봄을 제외하고 청소와 요리 등의 일상적인 무급가사노동 수행시간에 변동이 없더라도¹²⁾ 출산자녀로 인해 가족구성원에게 배분되는 소비 수준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무급가사노동의 연령프로파일에서, 50대 이후 노년기에는 성별에 상관없이 무급가사노동의 생산 및 소비수준이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노인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서 무급가사노동을 생산하는 것이며, 다른 가족구성원 혹은 다른 개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는 무급가사노동의 소비에서 생산을 차감한 생애적자 연령프로파일에서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의 남성은 상대적으로 무급가사노동의 참여수준이 낮다. 특히 이탈리아의 남성은 모든 연령에 걸쳐서 생애적자가 양(positive)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 남성은 평균적으

로 자신이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무급가사노동의 소비를 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이탈리아 여성은 20대 이후 지속적으로 자신이 소비하는 것 보다 더 많은 무급가사노동을 생산한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비교국가에서도 동일하여, 무급가사노동의 생애적자 연령프로파일이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페인과 이탈리아 여성의 생애적자 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큰 경향이 있다¹³⁾.

4. 나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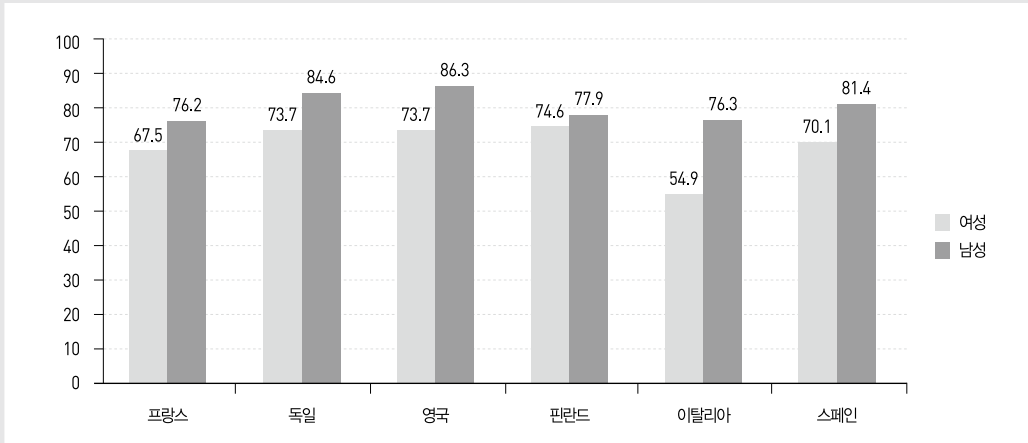
유럽 6개국의 비교분석 결과, 국가 및 연령에 상관없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무급가사노동의 생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별 차이는 유급시장노동과의 관계를 통해서 밝혀볼 필요가 있다. 성별 경제활동참여율을 살펴보면, 이탈리아의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54.9%로 가장 낮고 프랑스(67.5%)와 스페인(70.1%)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유급시장노동과 무급가사노동은 일정 부분 대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국가 간 차이가 크지 않을 뿐더러 유급시장노동과 무급가사노동 간의 특별한 경향성도 보이지 않는다. 여성이 유급시장노동 혹은 무급가사노동의 참여를 결

11) 무급가사노동의 소비는 가족구성원에게 동일하게 배분된다는 가정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임.

12) 혹은 소폭 감소하더라도

13) Bernhard et al.(2013)에서는 생애재배분에 대해서는 추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힘. 생애재배분은 이전의 유입과 유출 규모를 볼 수 있음.

그림 3. 성별 경제활동참여율



주: 2013년 기준임.
 자료: OECD Statistics. Labour Force Statistics(2015년 2월 24일자).

정하는데는 양육수당과 돌봄서비스 등 가족정책과도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된다(Hammer et al., 2013). 시간제약 하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결정은 돌봄노동에 대한 정부정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에 대한 공적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 주요국의 연구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대부분은 유급시장노동을 대체하여 가정 내에서 무급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부모가 성인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노부모가 생산한 무급가사노동의 일부는 성인자녀가 소비하게 되므로 노부모의 생애적지는 음(negative)의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노인세대는 자녀세대로부터 연금과

건강보험 등 공적이전(public transfer)을 지급받지만, 자녀세대에게 돌봄 및 일상적인 가사서비스 등 무급가사노동을 통한 사적이전(private transfer)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세대는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양집단이라는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메카니즘은 가구형태와 관련이 높다. 국민시간이전계정에서 무급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 내에서만 이전이 이루어진다고¹⁴⁾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형태에서만 세대간 이전이 발생된다. 자녀와 동거하는 60~70세 인구 비율이 국가별로 다르다. 60~70세의 생애적자가 큰 음의 값인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35~40%로 높은 편이며(각각 40%, 35%), 프랑스와 독일, 핀란드는 10% 미만이다(각각 9%, 6%,

14) 가족구성원이 모두 소비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임.

표 1. 연령대별 자녀 동거비율

(단위: %)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0~70세	70세 이상
프랑스	2	34	78	72	32	9	9
독일	1	24	66	62	26	6	8
영국	4	31	73	76	43	14	10
핀란드	2	31	70	69	24	5	9
이탈리아	2	25	65	75	61	35	20
스페인	3	20	65	80	65	40	33

자료: EU-SILC 2010; Hammer et al.(2013)에서 재인용.

5%).

이러한 연구결과는 복지제도의 개혁이 공적이전 뿐만 아니라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무급가사노동의 사적이전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Hammer et al., 201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고령화시대에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부족한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정책방향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가정 내 무급가사노동의 이전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시장부문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

동참여율이 증가하면서 돌봄노동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출산 자녀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노부모의 기대여명이 증가하면서 돌봄노동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돌봄노동은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돌봄노동에 대한 욕구와 그에 따른 정책은 여성의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노동정책 수립 및 실행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급가사노동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외에도 교육 및 미래세대의 인적자본개발과 건강수준 등과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관심이 절실하다¹⁵⁾. ■

15) Donehower, G(2014), Family and Economic Policy in a Context of Changing Gender Roles, 제10차 국민이전계정 국제컨퍼런스 발표자료, 2014. 11. 14.